

일반판매조건

1. 적용 여부. 본 일반판매약관(“본 약관”)은, 본 약관이 첨부된 제안, 견적, 확인 또는 계약(“본건 계약”)에 적용되며 이에 포함됩니다. 본건 계약과 본 약관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본건 계약이 우선합니다. 본 약관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이하거나 이에 추가적인 것으로 귀하(“구매자”)가 한국유미코아 유한회사(“유미코아”)에게 제공하는 여하한 내용이나 조건은 본 약관에 의해 거부됩니다. 구매자가 아래 제 3 조에 따라 물품 인도를 수령할 경우 본 약관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제안 및 주문. 유미코아가 제공한 모든 제안과 견적은 구속력이 없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발주한 모든 주문은 제안이나 견적에 맞게 발주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미코아가 서면으로 확인하였을 때 비로소 수락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인도 및 인수. 본건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모든 물품은 FCA Umicore’s works 조건(Incoterms® 2010)으로 각각 인도됩니다. 상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각 인도는 개별적인 판매를 구성합니다. 본건 계약에 명시된 모든 인도 시점은 구속력이 없는 예상치에 불과합니다. 구매자는 이러한 시점 이외에 물품이 인도된다는 이유만으로 물품 인수를 거절하거나 가격 인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청 인도일까지의 선행 기간(lead time)은 6 주간입니다. 만약 구매자의 귀책 사유로 물품 인도가 금속 헤징(metal hedging) 후 3 개월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물품 가액에 월 1%의 이율로 지연 이자가 부과됩니다. 구매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모든 물품을 검수하고 그 인수나 거절 여부를 유미코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유미코아에게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는 물품을 “있는 그대로 (AS IS)” 인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가격 및 소유권 이전. 본건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물품 가격은 모든 세금, 관세, 수수료 및 기타 부과금을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납부할 책임은 구매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유미코아의 소유권은 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대금을 전액 최종적으로 완전히 지급한 시점에 비로소 구매자에게 이전됩니다. 물품 대금이 수령되는 시점까지 구매자는 물품을 (i) 자신의 전적인 관리 하에 유지하고 (ii) 유미코아가 소유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표시하며 (iii) 어떠한 방식으로든 기타 물품과 통합하거나 변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 지급조건. 본건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매자가 유미코아 재무팀에 따를 때 충분한 신용 담보(credit coverage)를 확보하였을 경우, 구매자는 해당 청구서 일자로부터 30 일 이내에 물품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구매자의 신용이 변경되는 경우, 유미코아는, (i) 물품 대금의 선지급이나 (ii) 신용장 등 기타 금융담보 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모든 대금을 어떠한 상계, 환수, 또는 반대 채권 적용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 기일이 경과한 모든 금액에는 월 1%의 이율로 이자가 가산됩니다. 구매자는 해당 금액의 청구를 위해 유미코아가 부담한 모든 비용과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6. 해지. 본건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본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구매자는 유미코아가 해지일 전까지 본건 계약을 수행한 결과 부담한 모든 비용과 경비를 유미코아에 변제해야 합니다. 그러한 비용과 경비는 원료비, 인건비 및 생산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7. 제한된 보장. 유미코아는 인도 시점에서 물품이 해당 규격에 부합할 것임을 구매자에게 보장하나, 그 외의 기타 모든 명시적·묵시적인 보장은 부인합니다. 이러한 보장을 위반한 데 대한 구매자의 유일하고 전적인 구제책으로 유미코아는 (i) 부적합한 물품의 교체나 (ii) 부적합한 물품에 상응하는 구매대금의 변상 중에서 선택합니다. 구매자는 잠재적이거나 드러나지 않은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이를 유미코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8. 손해배상의 부인과 책임의 한도.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한도 내에서 유미코아는 본건 계약이나 본 약관으로 인한 결과적·부수적·간접적 손해(일실이익 및 생산중단시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본건 계약과 본 약관에 따라 유미코아가 부담하는 책임은 그러한 책임이 발생일한 날로부터 직전 12개월의 기간 동안 본건 계약에 따라 구매자에게 판매된 물품의 총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9. 개별성 및 양도. 관할 법원이 본건 계약이나 본 약관의 어떠한 조항을 무효하거나 집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해당 조항은 본건 계약이나 본 약관과 분리되며 나머지 조항에 추가적인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구매자는 유미코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건 계약이나 본 약관에 따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의무를 위임할 수 없습니다.

10. 비밀유지. 구매자는 본건 계약과 유미코아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비밀로 취급하고 유미코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또는 그 내용을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11. 상계. 유미코아는 자신의 기타 권리와 구제책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자신이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자신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와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채무의 만기 도래나 예정 여부는 불문합니다.

12. 불가항력. 유미코아는 자신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사정(화재, 홍수, 자연재해, 관련 법률의 변경, 원료 조달상의 문제점, 전쟁, 장비 고장, 파업, 폐쇄, 노사분규 및 유틸리티나 교통 장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한을 받는 한도 내에서 본건 계약에 따른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13. 준법. 구매자는 해당되는 경우 (i) 유미코아가 제공한 안전 관련 정보, 및 (ii) 법규정 및 규칙(환경 보건 및 안전과 관련된 법규정 및 규칙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준수하여 물품을 취급, 저장, 처리, 사용 및 이전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이에 자신은 숙련된 소비자이며, 독성물질, 유해물질 및 기타 위험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해당 물품을 취급, 저장, 처리, 사용 및 이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적인 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유미코아에게 진술합니다.

14. 준거법 및 장소. 본건 계약과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됩니다. 본건 계약이나 본 약관으로 인한 여하한 청구나 분쟁에 대하여 서울 소재 관할 법원이 독점적 관할권을 가집니다. 구매자는 그러한 관할권과 관련된 일체의 방어를 포기합니다. 본건 계약이나 본 약관에는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